

광주·전남 '민주 중심' 정계개편 탄력받나

여야 구도 1대 16→3대 14... 차기 총선지형 촉각 평화·미래 호남 의원들, 신당 창당 전망도 나와

6·13 지방선거로 치러진 광주·전남 단체장·지방의원·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2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벌써 여야 구도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로 야당 소속 지역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다 다가올 총선에 선거결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여야 구도가 1대 16에서 3대 14로 바뀌면서 야당 국회의원의 책임론으로 인한 위상변화와 함께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이 힘을 받을 것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

회까지 일대 격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국회의원은 광주 8명, 전남 10명 등 18명이다. 이중 여당은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1명뿐이었지만,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로 광주 송갑석(서구갑)·전남 서삼석(영암·무안·신안) 후보가 당선돼 3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당별 분포는 민주당 1명·평화당 11명·바른미래당 4명·무소속 2명에서, 민주당 3명·평화당 9명·바른미래당 4명·무소속 2명으로 바뀌었다. 숫자상으로는 민주당이 2명 늘고 평화당이 2명만 줄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태풍급 바람을 지역

에 몰고 오면서 총선을 앞둔 지역정치권은 긴장의 모습이 역력하다.

그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앞세운 평화당이 사실상 제1당 역할을 했지만 지방선거 참패로 위상에 금이 갔다.

평화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총동원돼 민주당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싸움'을 견제해줄 것을 읍소했지만 참패했다. 평화당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바른미래당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단체장은 물론 광역의원조차 단 1곳도 건지지 못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10% 득표율조차 채우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정당이 내놓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데 있다. 2년 뒤 총선에서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기댈 수 있는 단체장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지역조직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만만하다. 광역·기초 단체장에 같은 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포진해 있어 다음총선에서는 모두 되찾아 오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총선에 앞서 정계개편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나 평화당·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민주당행'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당내 거부감으로 여당 합류도 여의치 않은 만큼 호남지역 평화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제2의 국민의당 창당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17일 "국회의원들이 다시 뭉쳐 정면승부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세워 지금의 난관을 타개할 정치적으로 풀지는 올 하반기쯤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고 말했다.

/정근산·조기철 기자

전남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인 행보는? 정당 입당·복당 관심... 일부 관망 저울질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전남지역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 입당 또는 복당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천갈등 등을 이유로 몸담았던 정당에서 뛰쳐나왔던 당선인의 경우 복당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이미 '선거 후 입당'을 주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22개 기초단체 가운데 5곳에서 무소속 당선인을 배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인, 정형복 광양시장 당선인,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인, 정종순 장흥군수 당선인,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인 등이 그들이다.

5명 가운데 정형복·유두석 당선인 2명은 무소속으로 두 번 연속 승리한 만큼 현재로서는 정당 입당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특히 유 당선인은 민선 4기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는 사실상 3선 군수다.

나머지 3명 당선인은 당적을 유지하다가 선거 전 탈당한 만큼 입당 여지가 있다. 권오봉·박우량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종순 당선인은 민주평화당이 '친정'이다.

게다가 일부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후 입당'을 약속하며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은 어렵겠지만 일부 당선인이 복당 또는 새로운 정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은 있다"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 움직임이 꿈틀대면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근산 기자

민주 단체장 당선인들 "국민명령 받들 것"

지도부와 DJ·YS 묘소 참배 "평화·민생 완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압승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이용섭(광주시장)·김영

록(전남지사)·박원순(서울시장)·이재명(경기지사)·박남춘(인천시장)·이지중(충북지사)·양승조(충남지사)·허태정(대전시장)·이춘희(세종시장)·송하진(전북지사)·오거돈(부산시장)·송철호(울산시장)·최문순(강원지사) 등 13명의 당선인이 함께 했다. 김경수(경남지사) 당선인 이날 지역 당선인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주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덕담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도지사부터 기초단체 의원까지 모두가 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개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선인들은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

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민생안정, 통합과 상생의 정치, 국민주권주의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안착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가 김대중(DJ)·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지방선거 역대 최대 승리 성과를 보고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의당 김영관 첫 광주 지역구 당선

광산구의원 진출... "생활민원 해결 주력"

정의당이 창당 5년 만에 광주에서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영관 정의당 광주 광산구의원(비야동·첨단1동·첨단2동·하남동·임곡동) 당선인(50)이다.

그는 6·13 지방선거에서 4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영임 당선인 등 7명과 경쟁해 4,451표(10.6%)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주민들은 민주당 일당독점에 대한 비판 의식과 함께 소수정당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그 동안 정의당이 의회진출에



번번이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구정활동계획을 묻

는 질문에 "정치와 생활은 동떨어진 게 아니다. 특히 구의원은 더욱 그렇다"면서 "정치적 이해를 담는다고보다는 주민민원과 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영봉 기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꽃다발을 치켜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 당선 '눈길'

이현수 전 광주 북구 문화경제국장 김희동 전 진도군 기획조정실장

광주·전남지역 간부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마친 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에 당선돼 눈길을 끌고 있다.

3명의 기초의원을 뽑은 광주 북구가 선거구에서는 이현수 민주평화당 후보가 20.54%의 지지를 얻어 마차를 타고 북구의회에 입성했다.

이 당선인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치권에 입문해 단진 첫 출사표에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광주 북구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뒤 북구 문화경제국장까지 지냈다.

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출마했고, 1차적인 목적은

달성했다"며 "북구청 직원들에게 당선인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구청 근무직원들의 수준은 높다"며 "많은 공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잘 못한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칭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전남 도의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김희동 당선인은 진도군선거구에서 220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진도군 기획조정실장을 끝으로 37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치에 입문한 김 당선인은 4년 전 민주당 경선 탈락 후, 이번 두 번째 도전만에 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김 당선인은 "민주당 바람이 워낙 거세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면서 "같이 근



이현수 김희동

무해는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지원과 주민들의 사랑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당선인은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활동에 열심히 임하겠다"면서 "낙후된 진도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기철 기자

바로 잡습니다

지난 15일자 3면 광주·전남 당선인 명단에서 전남 기초의원 여수시 가선거구 박상덕(민·47·정당인)을 정광지(평·48·정당인)로 바로잡습니다.

제 3회 엑스페론 전국 남·여 아마추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강원지역 - 류주영 프로 010-3508-4478
여주,이천지역 - 장채정 프로 010-5919-5396

- 강원,여주,이천 예선 2018. 07. 10 (화) 13:00 (샷건) 동촌 C.C
- 본선 2018. 08. 29 (수) 부여 롯데 C.C
- 참가대상 만 25세 이상 남, 여 (순수아마추어)
- 참가비 금 50,000원
- 참가문의 엑스페론골프 아카데미 대회본부 032-741-8315
엑스페론골프 본사 02-2070-5009
- 참가비입금 여주,이천지역 : 예금주 장채정 / MG새마을금고 3567-10-013687-3
강원지역 : 예금주 류주영 / 신한 131-016-370742

※참가비 입금시 참가선수 명으로 입금해주시고 꼭 확인 해주십시오

총상금 80,000,000원 상당

주최 / XPERON 엑스페론골프(주) 주관 / XPERON Golf Academy
협찬 / TANK 유유안 흥국증권 Enhappy SBC 주서함업 알렉트로닉스